

400여개 한전 협력·부품업체 끌어와야 인구 유입 탄력 받는다

광주·전남 미래 비결 3대 役事 완공의 해 (14)

공동혁신도시 ⑤ 인구 5만 자족도시 만들려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빛가람도시)로 옮겨오는 공공기관들이 올 연말이면 대부분 신사옥 공사를 마치고 '나주 시대'를 열게 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의 한 해 예산만 81조원에 달하고, 관련 업체들의 추가 이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주거, 문화시설, 병원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해 나주로 옮겨오는 기관 직원들의 완전 이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견인하게 될 혁신도시 클러스터도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이주에 따른 시너지효과 거둬야 =빛가람도시로 옮겨오는 기관 중 올 상반기에 한국관련초진흥원, 전과진흥원, 전과연구원,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사옥 공사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한전 등의 기관이 신사옥 공사를 끝낸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울 사옥이 팔리지 않아 나주혁신도시에 신사옥을 짓지 못했던 인터넷진흥원도 조만간 부지 매입 계약을 할 예정이다.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분리된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도 나주로의 이주를 본격화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할 이전'이 아닌, 정부 방침대로 '전체 이주'를 확정하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전의 완전 이주가 확정됨에 따라 400여개에 이르는 한전 협력·부품업체도 빛가람도시에 분사 이전 및 지사 설립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빛가람도시가 인구 5만명 이상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주뿐 아니라 관련 업체들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직원이 혼자 나주로 오는 '나홀로 이주'에 멈추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관련 업체들의 추가 이전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 기관의 직원과 가족이 최대한 많이 나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빛가람도시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만명 이상의 인

에너지·농생명·정보·문화

4대 클러스터 활성화 시급

직원·가족 정착 위해선

교육·문화·소비시설 갖춰야

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이주기관의 모든 가족이 나주로 이사를 오더라도 최대 인구는 1만 6000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 등 인근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이전기관의 관련 기업들의 추가 이전과 관련 연구소 유치 등이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다.

◇정주여건 개선, 클러스터 활성화 =사람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관건이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문화·소비 시설이 충분하고, 교통이 편해야 한다.

현재 빛가람도시에는 인구 유입이 더디고, 기반시설도 늦어지고 있다. 사람이 풀려야 기반시설이 늘어날지라도 조성 초기이기 때문에 상업지구 등 민간이 참여하는 부지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마땅히 학교가 없으면 이전기관 가족

의 이전이 저조하게 되고, 이에 따른 교육 수요가 적기 때문에 교육시설을 늘리지 못하는 악순환만 계속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성 초기 인구가 적더라도 충분한 교육 시설을 갖추고, 민간의 개발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클러스터 활성화도 빛가람도시 성공을 위한 중요 과제다. 나주에 새롭게 동지를 틀게 되는 공공기관은 크게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 예술 분야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빛가람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를 지역 경제와 연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 지역 대학들도 이전기관들을 겨냥한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는 등 이전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교육기관 등이 입주하게 되는 클러스터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견철 원장은 "에너지와 농업관련 이주기관의 특성을 살려 에너지·농업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조성해야 한다"면서 "한국전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농업 관련 기관과 연계한 농업의 신산업 발굴 등 신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야권연대 신경전

민주당 "분열은 공멸"... 安신당 "갈길 가겠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야권 연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설 이후 연일 야권 분열은 곧 지방선거 '공멸'로 이어진다면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안 의원 측은 "갈 길을 가겠다"며 연대 불가론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민심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야권이 단합하라는 것이고 정치 분열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며 "야권이 하나 될 때만이 선거에 승리하고 새 정치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열은 곧 공멸이고 하나 되는 공생의 길이란 점을 분명히 서로 간에 알아야 한다"고 덧붙

였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중빈입니다'에 출연, 일단 "지금 시점에 야권 연대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며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안 의원 측은 "갈 길을 가겠다"며 연대 불가론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연대는 최악에, 국민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연대라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의원 측은 그러나 연대론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성식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정책 공조는 할 수 있지만 정치

공화적 선거연대는 하지 않겠다"라며 "오히려 낡은 정치 틀을 깨고 새 정치의 물꼬를 트는 데 우리 나름대로 정정당당히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날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연대는 달레마"라고 표현해 막판 연대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을 수습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유기농 식당을 하나 내는 것인 만큼 저희 메뉴로 주민들에게 다가서야 맞다"며 "기존의 식당들도 좋은 메뉴를 개발하고 주방을 깨끗이 해서 손님들 함께 모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4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김영수·김영복·양형일(왼쪽부터) 예비후보자가 서류 접수에 앞서 접수순서를 추첨을 통해 배정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광주·전남 6명 접수

광주시장 후보 윤민호, 시교육감 양형일·김영복·김영수

전남지사 후보 이석형, 도교육감 김경택 등록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일제히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이날 광주·전남에서 현재 6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시장위원장은 이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광주시교육감 후보 출마를 선언한 양형일 전 국회의원과 김영복 조선이공대총장,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등 3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전남도선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김경택 동아인재대총장도 전남도 교육감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어께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표한 수량(선거구 내 가구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공약집도 1종에 한해 발간, 판매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5월 14일 마감되며, 오는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는 3월 23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6·4 지방선거 중립 훼손 용서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 훼손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

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수 기를 유출 사건에 대해 "이번 기를 유출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인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

게 처리해주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질책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차량 소독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새에 대응한 축산 농가 방역 요령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보완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의 즐거움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ityour.kr (한글영수증 발행 가능)

무안공항 MU 항공으로 출발(매주 목토 출발)

상해·설두산·신선거·주가각 4박5일 **869,000**

인찬공항 대한항공으로 출발

터키, 그리스 일주 11일 **3,490,000**

인찬공항 대한항공으로 출발

베트남, 캄보디아 4박6일 **990,000~**

겨울방학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299,000**

선착순 20명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399,000**

내맘대로 자유투어 일본 규슈 3박4일 **189,000~**

항공 일본고급 료칸 및 특급호텔 숙박!! 규슈 3박4일 **599,000~**

항공 특급호텔 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무안-장가계 전세기 3/28~5/30일 [월/금 출발]

실속 장가계/천문산 4일 [금요일출발] **959,000**

품질 장가계/천문산 4일 [금요일출발] **1,059,000**

실속 장가계/천문산 5일 [월요일출발] **989,000**

품질 장가계/천문산 5일 [월요일출발] **1,089,000**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34,000~**

당서는 관광진흥법 및 공경거래위원회의 중요도 표시, 광고비용 협치하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주도 2009-1호]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광주/목포/여수/김해/1년거, 여행보증보험 가입/여행목적비지급 (1억 원, 국내여행 5천만 원, 관광진흥법 제71조, 관광 및 무주 여행료, 무주출발료 포함) ·교육원, 항공 및 선박, 컨셉트/전시/ ·4대 요강인 항공 및 항공도로 연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목적비지급 ·예약시 캐시(현금)결제 및 결제방법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결제방법: 카드, 기스(기스)카드, 통신회사, 선불카드, 각종 비자카드(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